

가게에서

- “생선은 싱싱합니다. 날 떠나기 싫어서 죽은 척하는 겁니다.
 - ”당근 사세요. 이 당근 먹으면 만사가 편안해집니다. 모든 게 당근이거든요.“
 - ”파를 팔 때는 최불암씨를 빗대어 보라.
- “최불암 씨 드려요. 어서 사세요.” 이 유머는 최불암씨의 캐릭터인 특유의 웃음소리 , “파~!”를 소재로 던지는 유머다.